

“이웃 돕는 건 봉사 아닌 ‘값음’ 이죠”

대전시청불자회, 노인복지관서 봉사하던 날

“남자분들은 2층 방으로 가시고요, 여자분들은 1층 교육실로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한창 내리던 7월 1일 오전 10시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11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편한 복장에 자원봉사단 조끼를 맞춰 입은 이들은 바로 대전시청 불자회 회원과 가족들.

대전시청불자회는 11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임으로 올해 2월부터 8개월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청소와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팀은 10~15명을 기준으로 ‘보시’ ‘인육’ ‘지계’ ‘정진’ ‘선정’ ‘지혜’ ‘금강’ ‘관자재’ 등으로 구성됐다.

대전시청불자회는 매년 지역의 어린이 보육 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워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8개월 나눠 매주 토요일 봉사

이날은 불자회 8개월 중 인육팀이 봉사활동을 하는 날로 팀 간사를 맡고 있는 송민성(40·회계과 회계담당)씨의 안내로 회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 슬퍼서 쓰는 2층의 사랑방, 회원들은 넓은 방의 이불과 방석 등을 정리하고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낸 뒤 껌레로 깨끗하게 닦아냈다. 그리고 방 안쪽에 자리한 넓은 세면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다보니 세면실이 가끔 화장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은 왁스칠을 해가며 바닥의 때를 밀어낸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도록 열심히 불자회 전경진(51·문화예술과 문화담당) 총무는 “일주일 중의 하루지만 이렇게라도 청소를 해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 함께 하던 조상원(36·시민봉사실)씨도 여기저기 물을 뿌려가며 ‘냄새 제거’에 힘을 쏟았다.

사랑방 청소가 끝나고 남자 회원들은 다시 3층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체조 강의를 끝마친 후 기다렸던 회원들은 책상과 의자를 정돈하고 대걸레로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유지은(46·사적지관리사무소 건축담당)씨는 복도에 앉아 쉬고 있던 할머니들에게 “건강하셔야 오랫동안 뵈실 수 있으니까 여기 자주 오셔서 즐겁게 지내시라!”며 정담(情談)을 주고 받는다.

같은 시각 여성들은 1층 서예교육실과 컴퓨터 교육실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우선 관계”로 정식 여성회원들은 오지 못했지만 남편을 따라 활동에 참여한 ‘비공식’ 회원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교실을 정리한다.

전경진 총무의 부인 박연옥(49)씨는 인육팀 여성들의 만연사로 시정봉사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성파. 박씨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죠!”라며 땀을 닦았다. 유지은씨의 부인 이진(42)씨는 “내일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보는 남편이 복지관에 나오는 데 따라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봉사활동에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밌는 일”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렇게 청소가 끝나고 11시 30분에 회원들은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다시 모였다.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해드리기 위해서다. 이날의 메뉴는 ‘감자수제비’, 비오는 날씨와 잘



사랑방 세면실 바닥을 청소하는 대전시청불자회원들.



남규(오른쪽)가 한 할아버지에게 ‘후식’을 드리고 있다.

어울리는 음식이다. 감자를 찢고 밀가루 반죽을 떼어내 만든 수제비는 ‘정성’ 조미료까지 더해져 어르신들의 식사가 된다. 아빠(상수도사업본부 조상규씨)를 따라온 남규(7)는 직접 수제비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배달’하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남규는 ‘후식’으로 제공된 떡과 빵도 직접 어르신들께 나눠드렸다.

아빠 따라온 남규 “할아버지 떡 드세요”

점심을 먹고 나오던 임대순(86·대전시 서구 탄방동) 할머니는 “요즘에 이 사람들같이 노인네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토요일마다 와서 고생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고 고마움을 표실했다.

점심 봉사까지 마친 회원들이 복지관 사무실에 들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휴게실에 다시 모였다. 꿀 맛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평가하는 모습에 여유와 뿌듯함이 넘친다.

인육팀 팀장인 이정규(52·국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씨는 “얼마 전 해인사에서 있었던 공불련 합동수계법회에 참석했을 때 백련암에서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며 마무리 인사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값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값음’이 언제 마무리되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전시청불자회원들의 모습이 흐뭇했건, 이날 빗줄기도 어느새 가늘어지고 있었다.

글·사진/대전=유철주 기자 ycj@buddhania.com



봉사활동을 마친 회원들이 복지관 휴게실에서 점심을 나누고 있다.

회원 가족도 동참... 쓸고 닦고 식사준비까지

구석구석 청소 끝내고 어르신들 말벗도

일터가 도량입니다

‘공불련의 박지성’으로 통해요

관세청 서울세관 이명중 서기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른 측구선수 박지성은 그라운드에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항상 겸손한 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인터뷰하는 모습은 순박한 불자 모습 그대로다.

관세청 서울세관의 이명중(27·연주) 서기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의 박지성’으로 통한다. 공불련 각종 행사에서 굿은일은 도맡아 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무원불자들을 만나며 신생활을 고무한다. 공불련 박현남 간사는 “선배

고 참여하는 열성파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니다보면 1년이 금방 흘러간다. “근무 시간외에는 봉사에 다니며 청년회 활동과 개인정진을 합니다. <금강경>이나 <법화경>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보거나 108배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요.”

빠듯한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외에도 각종 세무관련 전문 서적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면서 불교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서기는 “인연”을 말했다. “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이명중 서기는 ‘하심’과 ‘신독’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불자다.

불자들의 얘기는 항상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는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그를 추켜세웠다.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해 벌써 6년째 근무하는 중공참이죠.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지만, 포대에 비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긴 했습니다.”

주한미8군에서 근무하며 한국스님 초청 법회를 주관하기도 했던 이 서기는 성윤갑 관세청장이 공불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세청 불자회 활동을 시작했다. 공불련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세관 불자회 총무를 맡아 ‘발바닥에 땀이 나도 툭’ 뛰어다니고 있는 이 서기는 관세청 본청과 6개 지역청 연합 불자회 활동에도 열심이다.

또 공불련 전체 일정에는 빠지지 않고

지는 ‘인연’도 중요하합니다. 무늬만 붙자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장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부족하다는 이 서기. 그래서 그에게는 고민 또한 적지 않다.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주위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이런 때는 시간을 갖고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기는 하심(下心)과 혼자일수록 행동을 삼가고 자신을 절제한다는 뜻의 용어 ‘신독(慎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다닌다.

생을 다 할 때까지 ‘상구보리화화 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실천하고 싶다는 이명중 서기의 눈망울은 오늘도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대운사여름산사수련캠프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즐거움 여름방학입니다!!
부처님 여름대사행과 온갖사물들도 지친듯해 보이네요.
이 여름 여름을 아름다운 산과바람, 그리고 동화향 부처님의 미소가 있는 대운사 여름산사수련캠프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의 물, 마르거나 사물을 일러주고 정리를 배우고 함께 뛰어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여름방학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운사 불교어린이회 여름산사수련캠프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바사 석가모니불

- 일 시: 불기 2550년(2006년) 7월 28일(금) ~ 30일(일)
- 장 소: 대운사 대법당
- 대 상: 유치(7세) ~ 초등학교 6학년까지
- 주 최: 대운사불교 어린이회
- 문의: 대운사 ☎ 041)533-9993
- 회 비: 20,000원
- 준비물: 공양미(쌀 한공기), 필기도구, 크레파스, 사인펜,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수건, 취침용 큰타올(이불대용), 수영복

※ 갈아입을 옷과 수건은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옷과 수건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100명 선착순 예약 접수중 (25일까지)

대운사불교어린이회

제3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나도 부처님처럼”

-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심성개발 명상수련 -

-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생 설계를 위한 명상학교 -

청소년이 바로 서야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바로 서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강의와 심성프로그램과 명상 그리고 자기 진단 자료 및 여러가지 불교 수행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자랑과 정신적 성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잠선, 명상 등 불교 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는 우리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수행하며 뜻과 목표를 가진 보살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목표 및 기대효과

- 부처님의 삶을 알고 부처님을 자신의 진정한 스승으로 삼는다.
-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심성수련, 명상수련, 영물수련 등을 한다.
- 뜻과 목표가 있는 삶, 서원이 있는 삶의 계획을 세운다.
- 내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찬 삶의 비전을 갖는다.
-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심성을 갖는다.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힌다.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 태도를 갖는다.
- 매사에 도움이 되는 질문법을 체화한다.
-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잘 듣는 태도를 갖게 된다.
-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
-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 일 시: 2006년 7월 25일(화) ~ 28일(금) 3박 4일간
▶ 장 소: 다보사 다보수련원 (찾아오시는 길 - www.dabopia.net 참조)
▶ 동참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 대상 50명(선착순 마감)
▶ 동참금: 150,000원(농협 413060-51-005281 예금주: 대한불교진흥원) ※ 입금하신 뒤 전화로 이름을 알려주시시오
▶ 참가신청 접수: Tel 043)833-7789, Fax 043)833-2550 e-mail : dabopia@dabopia.net

다보사 다보수련원 367-84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전화 043)833-7789 / 홈페이지 www.dabopia.net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되어 날뛰고 있지만은 물질 문명으로서의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자비를 가지고 사는 인 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주인공은 인생이라고 부르겠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아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반 보림사 보림선원 철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철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남 60년 수행하고 계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목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아 래

- 일 시: 2006년 7월 28일(금) 오후 8시부터 2006년 8월 3일(목) 오전 7시까지
- 장 소: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 회 비: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43, 162, 1012, 1013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경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산 합창